

탄소관련산업, 두 날개 활짝 폈다

도, 올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탄소섬유 개발' 중점 추진

전북도는 2017년 하반기 탄소분야 주요사업으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 4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2011~2016, 1,991억원)의 성과를 활용한 2단계 사업으로 탄소기업의 시장진출 확대 및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총 714억원 투자·미래 탄소 산업수요에 대응해 탄소복합재 공정효율 향상 및 가격 저감 기술 중심의 11개 과제와 11개 핵심장비를 구축한다.

지난 7월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한 정부추경예산(69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탄소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높은 가격과 어려운 공정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에 상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 예산 확보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주관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중 사업공시, 사업공고 등을 신속히 이행한 후 R&D 공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도내 기업,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다.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사업은 항공 우주산업 핵심소재이며 국가 전략 자원인 초고강도 탄소섬유를 국산화 하기 위한 사업이다.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일본, 미국 등에서 수출규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국가간의 거래를 통제하고 있는 전략자원이며 전북도에서 2011년부터 준비하여 정부 민군 협력과제로 채택됐다.

효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해 2017년 6월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도는 2017년 국비 21억원을 확보,

2018년도 국비 21억원이 기재부에서 심의중이다.

선진국들의 수출규제품목인 초고강도 탄소섬유의 국산화는 우주항공 및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소복합재 부품 개발을 촉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임노옥 탄소산업과장은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사업은 전북도 탄소산업 육성 정책에 큰 전기를 마련하는 핵심 사업으로 산업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도레이사는 T-1000급(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하고 미국 보잉사 777X기종 개발에 향후 10년간 11조원 규모 탄소복합재 독점 공급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재외동포 전통문화연수 수료식

수료식에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전주시는 지난 4일 재외동포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전통문화연수 수료식을 끝으로 지난날 12일부터 약 3주 동안 재외동포 아동·청소년과 교육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2017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은 <관련기사 4면>

태풍 피해 예방 안전 점검 실시

새만금개발청은 8월 7일부터 11일까지 태풍 내습기 강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새만금 지역 내 시설물과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서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 투입된 대형 장비가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전도 파손될 위험이 없는지, 토사 붕괴 및 저지대 침수 피해 등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흙 쌓기 구간의 지반 침하와 균열, 배수로 상태 및 임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김진성 기자

연휴·무더위에 2분기 개인카드 사용액 증가

150조 5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2% ↑... 사상 최대

황금연휴와 냉방기기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분기 개인카드 승인액이 10% 이상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개인카드 승인액은 150조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다. 승인 건수도 42억6500만건으로 14.7% 증가했다.

이는 연구소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1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연휴와 고온현상의 영향에 따라 관

련 업종의 소비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5월 황금연휴와 6월 징검다리 연휴로 내국인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종의 카드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 운수업종도 13.5% 늘었다.

온라인을 통한 소매 판매와 더운 날씨로 인해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종(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카드

결제가 늘어나면서 도매 및 소매업에서 카드승인액도 11.2% 증가했다.

여기에 고온현상과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냉방기와 공기정정기 등의 가전제품 판매도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카드 승인액이 10% 이상 증가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4면 -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

“안철수 출마 ‘선사후공’ 安그늘서 당 실패 직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지도력 성공했다고 할 수 없어... 당에 부담”

국민의당 당권 주자인 정동영 의원은 지난 4일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선사후공(先私後公)이 아닌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안 전 대표 출마는 본인의 출마 배경과 의지와 상관없이 당과 당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창당해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국민의당이) 안 전 대표의 그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 국민의당이 그간 ‘안철수 사당’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오늘 당은 실패에 직면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지도력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당이 당답게 건설했더라면 시스템이 작동했을 것이고 재보 조작 사건 같은 것도 걸러졌을 터인데, 공당 건설에 실패함으로써 그런 구멍들이 뚫려 있었고 그것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거기에 대한 정치책임을 지겠다고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작 파문’에 대한 안 전 대표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또 안 전 대표 출마선언 직후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박수갈채를 받으며 나와도 시원치 않은데 출마 자체가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당의 혼란과 분열 상황으로 타나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왜 전당대회를 하느냐.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를 추스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직후 재보 조작 사건으로 당의 신뢰가 완전히 땅바

다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추스르기 위해 하는 전당대회”라며 “당연히 대선 패배 책임, 재보 조작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도부를 만들어야 이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터인데 (안 전 대표 출마는)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다만 안 전 대표 출마선언으로 당내 일각에서 탈당 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단합해야 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감성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에 대해 반발할 수 있다만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국민의당은 이 위기를 극복하면 앞에 탄탄대로가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하면 당을 살릴 것인가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며 전당대회 원주를 못 박았다.

천정배 “안철수 출마 천성 의원 ‘명뽀’”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과 관련해 “반대 성명을 낸 의원은 12명이지만 사실상 40명의 의원 중에 안 전 대표의 출마에 찬성한 사람은 단 1명”이라고 혹평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전주MBC 라디오 ‘유기하의 시사토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39명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 전 대표 출마는 국민들에게도, 국민의당에도, 안 전 대표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안 전 대표가 출마선언을 했는데 당은 지금 별집을 쫓아놓은 듯 격정과 한숨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 한눈에 반하다

국립세종로시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